

운명의 우즈베크전... “승점 3점을 확보하라”



2018 러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

슈틸리케호 내일 서울서 격돌...승리팬 조2위

이정협 원톱...손흥민·기성용 등 해외파 출격

FIFA WORLD CUP
RUSSIA 2018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우즈베크스와 맞붙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5일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크스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벌인다. 한국으로서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직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일전이다.

◇“우즈베크전 반드시 잡아라”...역대 전적 앞서

A조에서 6개 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이번 최종예선에서 우즈베크스탄전은 반환점을 돌게 된다.

대표팀은 현재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3승 1무)과 우즈베크스탄(3승 1패)에 이어 3위(2승 1무 1패)로 달리고 있다. 이번 예선 승리하면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2위 이내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본선 직행의 가능성은 멀어질 수 있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 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과 A매치 맞대결에서 9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22년 동안 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상대 전력이 만만치 않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이란에만 0-1로 졌을 뿐, 카타르 등 3팀을 모두 꺾었다. 슈틸리케호가 3-2로 힘겹게 승리한 카타르는 1-0, 중국은 2-0으로 꺾었다. 한국이 비겼던 시리아는 1-0으로 제압했다.

한국은 앞서 중국과 카타르 등 두 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 또 지난 11일 캐나다와 친선 경기 승리로 이란 원정에서 0-1로 패하며 잃었던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지나파” 제파로프 막아라
우즈베크스탄에서는 한국 축구에 익숙한 세르베르 제파로프(34)가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공격형 미드필드인 제파로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K리그 FC서울에서 뛰

대표적인 지한파다. 2013년부터는 성남 FC와 울산 현대를 거치며 한국 선수들과 손·발을 맞췄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넓은 시야로 팀을 이끄는 제파로프는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젊은 선수들과 견줘 체력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우즈베크스탄이 치른 앞선 최종예선 4차례 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뛰었다.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 공격을 주도하며 승리로 이끌었다.

미드필드 알렉산데르 케인리히(32)도 한국에서 뛰 경험에 있다. 케인리히는 2011년 아시안컵 3, 4위 결정전에서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몰아넣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아시안컵이 끝난 뒤엔 수원 삼성에 임대 선수로 입단해 데뷔 전인 FC서울전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와 최종예선에서 결승 골을 터뜨린 바 있다.

◇이정협 원톱 유력...베스트 11은
슈틸리케 감독은 공격적인 4-1-4-1 전술을 주로 가동하면서 4-2-3-1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톱에는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슈틸리케호의 ‘원조 황태자’ 이정협(울산)이 유력해 보인다. 이정협은 캐나다와 친선 경기에서 추가 골을 터뜨리는 등 활발한 플레이로 슈틸리케 감독의 만족을 샀다. 김신욱(전북)과 황희찬(갈차르)은 후반 교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좌·우측 날개는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2선 공격수로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나 김보경(전북)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기성용(스완지시티)도 전술에 따라 공격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정우영(충청)이나 한국영(알 가르미)이 중원을 지키며 공수를 조율할 예정이다.

포백에는 광태휘(FC서울)와 장현수(광저우)가 중앙을, 왼쪽에는 박주호(도르트문트)나 윤석영(브뤼헤)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에는 김창수와 최철순(이상 전북) 등이 거론된다. 골키퍼는 김승규(벅셀 고베)가 예상된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구자철이 몸을 풀고 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5일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크스탄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이대호-시애틀 결별?

1루 수비 가능 우타자 영입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34·사진)가 1루 수비가 가능한 우타자를 영입해 자유계약선수(F.A) 이대호(34)와 재계약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현지 전망이 나왔다.

시애틀 구단은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데니 발렌시아(32)를 영입하고 마이너리그 투수 폴 블랙번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메이저리그 소식을 다루는 MLB닷컴은 발렌시아에 대해 “좌타자 데니얼 보글백과 짝을 이룰 능력 있는 우타자이자 1·3루와 좌우 외야 수비도 가능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2010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발렌시아는 보스턴 레드삭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캔자스 시티 로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여러 팀을 거쳐 지난해 시즌 중 오클랜드로 이적했다.

발렌시아의 영입으로 시애틀과 이대호의 재계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MLB닷컴은 “발렌시아와 계약은 시애틀이 FA 1루수인 이대호와 재계약을 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제리 디포토 시애틀 단장도 “발렌시아와 이대호가 같이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시애틀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역시 오른손 타자인 카를로스 루이스를 영입하는 등 이대호와 점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올해 초 시애틀과 1년 계약한 이대호는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선발 출전 여부가 결정되는 플레트 시스템 탓에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104경기에서 타율 0.253(292타수 74안타), 14홈런, 49타점을 기록했다. 이대호가 시즌 종료 후 다시 FA 자격을 획득하면 시애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디퀸’ 조윤지 마지막에 웃다

KLPGA 시즌 최종전 우승

순천 출신 이정은 신인왕

‘버디퀸’ 조윤지(25·NH투자증권)가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이번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윤지는 13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장(파72·6505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최종전 ADT 캠프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다연과 이민영(24·한화)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린 조윤지는 이번 시즌 첫 우승의 감격을 마지막 대회에서 누렸다. 작년 7월 BMW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 4개월 만에 통산 3승 고지를 밟은 조윤지는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으며 상금랭킹 11위(4억3015만원)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날 우승으로 조윤지는 사우스스프링스 골프장을 ‘약속의 땅’으로 점찍었다. 조윤지는 지난해 5월 이곳에서 열린 E1채리티 오픈 3라운드에서 KLPGA 투어 최다 연속 버디 기록(8)을 갈아치우며 ‘버디퀸’ 칭호를 얻었다.

직전 대회 상금랭킹 60위까지 출전 자격을 주는 이 대회에 상금랭킹 59위로 출전한 새내기 이다연(19)은 3라운드에서만 6타를 줄여 준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즌을



‘버디퀸’ 조윤지가 13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ADT 캠프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윤지가 우승 축하 꽃잎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쳤다. 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신인왕 경쟁에서는 순천 출신의 이정은(20·토니모리)이 웃었다.

신인왕 포인트에서 이소영에 34점 앞선 채 대회에 나선 이정은은 공동51위(2오버파 218타)에 그쳤지만 이소영도 공동44위(1오버파 219타)에 머문 덕에 1위를 지켰다. 신인왕 포인트는 41위 이하면 똑같이 15점을 부여한다.

이정은은 “몸이 불편한데도 늘 대회장

에 나와서 응원해준 아버지께 큰 효도를 한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정은의 부친 이정호(52)씨는 휠체어를 탄 채 딸의 경기를 따라 다니며 응원했다.

이정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신인왕은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덧붙혔다.

대상을 확정된 고진영(21·넵스)은 이번과 72타를 쳐 공동17위(4언더파 212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KIA, 롯데와 연습경기 승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KIA 타이거즈가 연습경기로 훈련 성과를 점검한다.

‘호랑이 군단’은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에 마무리 캠프를 차리고 2017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연습경기를 통한 실전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일 KIA 선수단은 캠프 본진으로 사용하고 있는 킨구장에서 흥행전을 갖고 몸을 풀었다.

13일에도 킨구장에서 연습경기가 진행됐다. 앞선 흥행전 보다 경기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역시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KIA의 안방을 찾아 맞대결에 나선 것이다. 김현준(KIA)과 배장호(롯데)가 선발로 나선 이날 경기는 7회까지 진행됐으며, KIA가 10-7 승리를 거뒀다.

타국에서 반가운 적으로 만난 두 팀은 오는 17일 다시 한번 킨구장에서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2일에는 KIA가 원정길에 오른다. KIA는 삼성 라이온즈의 캠프가 꾸러진 아카마 구장으로 이동해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점검을 한다.

한편 캠프 초반 좌완 임기준이 부상으로 중도 귀국을 하면서, 올 시즌 신인이 투수 남재현이 대신 오키나와로 이동해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가 광주 분량 리틀 야구장에서 끝난 제 13회 KIA 타이거즈기 초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 수창초 타이거즈기 호남 초등야구 우승

6-4로 대성초 꺾어

광주 수창초가 ‘제 13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지난 11일 광주 분량 리틀 야구장에서 열린 광주 대성초와의 대회 결승에서 6안타와 사사구 8개를 묶어 6-4의 승리를 거두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팀 수창초에게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대성초)과 3위 2팀(광주 화정초·화순초)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부상으로 야구용품이 각각 수여됐다. 또 참가한 모든 팀에게는 야구 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주어졌다. 이와 함께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수창초 이석현에게 트로피와 상장도 수

여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다양한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됐으며,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12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개인상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이석현(수창초) ▲타격상: 강성민(0.857·수창초) ▲우수투수상: 김준연(수창초) ▲최다 안타상: 김다운(9안타·대성초) ▲홈런상: 김유현(3개·서석초) ▲최다 도루상: 김강준(3개·대성초) ▲최다 타점상: 김다운(9타점·대성초) ▲수훈상: 최민규(수창초) ▲감투상: 한홍희(대성초) ▲미기상: 서하은(대성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